

2023
고2 연매
미래엔

고2 언어와 매체 미래엔 | 2(1)(1) 국어의 음운 체계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국어의 음운 중에서 분절 음운에 속하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종류, 분류 기준, 개수 등을 반드시 암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명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표로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별 기준을 묻거나 각 음운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 다음은 국어의 모음에 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눈다.
- ㉡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나눈다.
- ㉢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 원순 모음으로 나눈다.
- ㉣ 반드시 다른 단모음과 결합하여야 하는 반모음이 존재한다.
- ㉤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존재한다.

- ① ㉠: 혀의 높낮이에 따라 ‘ㅏ’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 ‘ㅡ’는 저모음에 해당한다.
- ② ㉡: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ㅛ, ㅠ’는 전설 모음, ‘ㅜ, ㅝ’는 후설 모음에 속한다.
- ③ ㉢: 입술 모양에 따라 ‘ㅟ, ㅠ’는 평순 모음, ‘ㅝ, ㅞ’는 원순 모음으로 구분된다.
- ④ ㉣: ‘ㄱ’는 반드시 다른 단모음과 결합해야 발음될 수 있는 반모음이다.
- ⑤ ㉤: ‘ㅄ’는 단모음 ‘ㅈ’와 단모음 ‘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2. 국어의 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 ㉠ 여린 입천장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나는 소리는 ‘ㅈ, ㅉ, ㅊ’이다.
- ㉡ 입술 사이에서 파열을 일으켜 소리를 내는 자음에는 ‘ㅂ, ㅃ, ㅍ’이 있다.
- ㉢ 비음에는 ‘ㄴ, ㄹ, ㅁ, ㅇ’이 존재하고 이 소리들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 ㉣ 현대 국어에서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의 수는 19개이다.
- ㉤ 공간을 좁혀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에는 거센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고기
- ㉡ 송아지
- ㉢ 바지, 아버지
- ㉣ 설악[서락], 대관령[대괄령]
- ㉤ 나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 ① ㉠: 두 ‘ㄱ’은 다른 음운이다.
- ② ㉡: 6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③ ㉢: 두 ‘ㅂ’은 같은 소리로 실현된다.
- ④ ㉣: ‘ㄹ’은 모음 앞에서는 ‘l’의 음가로 실현되고, 자음 앞에서는 ‘r’의 음가로 실현된다.
- ⑤ ㉤: 천천히 읽으면 두 입술이 닿아 나는 소리는 ‘열, 굴, 을, 를’이다.

4. 이중 모음에 포함된 반모음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 ① ㅑ ② ㅓ ③ ㅕ
- ④ ㅗ ⑤ ㅜ

5. 국어의 음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의 변화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눈다.
- ② 혀의 높낮이에 따라 나뉘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는 각각 4개, 4개, 2개가 있다.
- ③ 자음은 19개이며, 센입천장소리와 목청소리에는 무성음만 있고, 잇몸소리에는 마찰음이 없다.
- ④ 파열음과 파찰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며 각각 4개씩이다.
- ⑤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는 음운과 장애를 받지 않는 음운 모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6. 아래 <모음 체계도>를 참고하여 민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ㅓ	ㅗ	ㅜ	ㅛ
저모음	ㅏ		ㅓ	

민수: 민정아, 넌 ‘내’와 ‘네’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겠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① ‘내’를 발음할 때는 ‘네’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해.
- ② ‘내’를 발음할 때는 ‘네’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③ ‘네’를 발음할 때는 ‘내’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④ ‘내’를 발음할 때는 ‘네’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⑤ ‘네’를 발음할 때는 ‘내’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 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7. 아래 <자음 체계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음 위치 조음 방법		㉠	㉡	센입 천장 소리	여린 입천 장 소리	목청 소리
		ㅂ	ㅃ			
파 열 음	예사소리	ㅂ	ㅃ		ㄱ	
	된소리	ㅃ	ㅄ		ㄲ	
	거센소리	ㅍ	ㅑ		ㅋ	
파 찰 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 찰 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에 들어갈 말은 ‘입술소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잇몸소리’이다.
- ③ ‘마찰음’은 ‘파열음’이나 ‘파찰음’과 달리 ‘거센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이다.
- ⑤ ‘유음’은 다른 자음과 달리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다.

8. <보기>를 바탕으로 국어의 자음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 천장 소리	여린 입천 장 소리	목청 소리
파 열 음	예사소리	ㅂ	ㅃ		ㄱ	
	된소리	ㅃ	ㅄ		ㄲ	
	거센소리	ㅍ	ㅑ		ㅋ	
파 찰 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 찰 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음 음운 개수는 모두 2개이군.
- ② 한국인들은 ‘다리’의 ‘ㄹ’과 ‘달’의 ‘ㄹ’을 같은 소리로 인식하고 있군.
- ③ 국어의 자음은 영어와는 달리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세 가지 소리가 짝을 이루고 있군.
- ④ ‘입마개[임마개]’에서는 조음 위치보다 조음 방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한국인들은 ‘바보’에서 첫 번째 음절의 ‘ㅂ’과 두 번째 음절의 ‘ㅂ’을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고 있군.

9. <보기>를 바탕으로 국어의 단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꺄	ㅡ	ㅓ
중모음	ㅔ	ㅚ	ㅜ	ㅛ
저모음	ㅙ		ㅘ	

- ① 'ㅣ'는 'ㅡ'보다 혀의 높이가 낮으며 입술 모양이 둥글다.
- ② 'ㅔ'는 'ㅙ'보다 혀의 높이가 높으며 혀의 위치가 뒤쪽이다.
- ③ 'ㅓ'는 'ㅓ'보다 혀의 높이는 낮지만 'ㅓ'와 같이 입술 모양이 둥글다.
- ④ 'ㅘ'는 'ㅜ'보다 혀의 높이가 높지만 'ㅜ'와 같이 혀의 위치가 뒤쪽이다.
- ⑤ 'ㅚ'와 'ㅜ'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법에 어긋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한다.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인 데 반해,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이다.

'달'과 '탈'은 'ㄷ'과 'ㅌ'이라는 소리의 차이로, '달'과 '돌'은 'ㄷ'과 'ㄴ'이라는 소리의 차이로 뜻이 달

라진다. 이는 국어에서 'ㄷ', 'ㅌ'과 'ㄷ', '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는데,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을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강약, 고저, 장단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은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므로 언어마다 다르다. 따라서 분절 음운의 체계와 비분절 음운의 종류는 언어마다 차이를 보인다.

(나)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조음 위치라고 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자음 체계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 리	잇몸소 리	센입천 장 소리	여린입 천장 소리	목청소 리
	파열음	ㅂ ㅃ	ㅍ ㅑ		ㅍ ㅑ
파찰음			ㅈ ㅉ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다)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한다.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있다.

모음은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ㅔ	ㅊ	ㅑ	ㅊ
저모음	ㅐ		ㅓ	

10. (가)~(다)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약, 고저, 장단도 음운에 해당한다.
- ② 음운은 구체적인 말소리이므로 언어마다 차이를 보인다.
- ③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 ④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⑤ 모음은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다.

11. 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혀의 윗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②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 ③ 'ㄷ'은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④ 'ㅂ'은 두 입술에서 나며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 ⑤ 'ㅎ'은 목청 사이에서 나며 공간을 좁혀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이다.

12. 모음 'ㄱ, ㅊ, ㅈ, ㅊ'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혀의 앞쪽에서 발음되는 전설 모음이다.
- ② 혀를 가장 낮게 하여 발음하는 저모음이다.
- ③ 혀를 입천장 가까이로 높여서 발음하는 고모음이다.
- ④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 ⑤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발음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민주주의의 의의

<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민주주의의 의의]
- ② [민주주의의 의이]
- ③ [민주주의에 의의]
- ④ [민주주의에 의이]
- ⑤ [민주주의의 이이]

최다 빈출 유형 2

제시된 설명을 만족하는 자음 또는 모음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 체계도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로 자음과 모음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많으며, 이 경우 조건을 하나만 잘못 이해하더라도 오답을 선택하게 되므로 꼼꼼하게 설명을 읽고 이를 만족하는 음운을 찾아야 합니다.

14. 다음 단어의 밑줄 친 부분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보 기>

1. 초성: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낸.
2. 종성: 혀의 높이가 높은 위치에 있고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으며 발음 시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됨.

- ① 떼창 ② 탄작 ③ 서리
 ④ 노래방 ⑤ 뒀안길

1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음	조음 위치	조음 방법
㉠	여린입천장 소리	파열음
㉡	㉢	유음
㉣	센입천장소리	㉤
㉥	잇몸소리	비음
ㅅ	잇몸소리	㉦

- ① ㉠: ㅋ
- ② ㉡: 잇몸소리
- ③ ㉢: 파찰음
- ④ ㉣: ㅁ
- ⑤ ㉥: 마찰음

16. ㉠과 ㉡에 해당하는 모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
• 혀의 앞쪽에서 발음됨.	• 혀의 뒤쪽에서 발음됨.
• 입술 모양이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됨.	• 입술 모양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발음됨.
• 혀의 위치가 높은 상태에서 발음됨.	• 혀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발음됨.

- | | | | | | |
|---|---|---|---|---|---|
| | ㉠ | ㉡ | | | |
| ① | ㄱ | ㅏ | ② | ㅗ | ㅜ |
| ③ | ㅣ | ㅡ | ④ | ㅓ | ㅝ |
| ⑤ | ㅑ | ㅣ | | | |

17. <보기 1>의 활동으로 만들 수 있는 2음절의 글자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1>

[단어 만들기 학습 활동]

㉠+㉡+㉢ ㉣+㉤

- ㉠ 파열음의 예사소리
- ㉡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
- ㉢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센입천장과 혀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모음

<보 기 2>

질즈, 된즈, 꺾쫘, 쓴저, 길서, 뚫주, 분서, 딴
쫘

목안배포음지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모음을 분류할 경우 ‘ㅜ, ㅠ’는 전설 모음, ‘ㅓ, ㅕ’는 후설 모음에 속한다.

① 혀의 높낮이에 따라 모음을 분류할 경우, ‘ㅏ’는 저모음, ‘ㅑ’는 중모음, ‘ㅓ’는 고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입술 모양에 따라 모음을 분류할 경우 ‘ㅕ, ㅠ’는 원순 모음, ‘ㅑ, ㅓ’는 평순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ㄱ’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⑤ ‘ㄱ’은 반모음 ‘ㄱ/ㄲ’과 단모음 ‘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2. [정답] ⑤

㉠ ‘ㅂ, ㅃ, ㅍ’은 모두 입술 사이에서 파열을 일으켜 소리를 내는 입술소리이자 파열음이다.

㉡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을 의미하며, 현대 국어에서 자음의 수는 19개이다.

㉢ 공간을 좁혀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에는 ‘ㅅ, ㅆ, ㅎ’이 있으며, 거센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ㅈ, ㅉ, ㅊ’은 센입천장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 비음에는 ‘ㄴ, ㄹ, ㅇ’이 존재하고 이 소리들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반면 ‘ㄷ’은 유음에 속하며, 울림소리이다.

3. [정답] ②

㉠은 ‘ㅅ, ㅓ, ㅇ, ㅏ, ㅑ, ㅓ’의 6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졌다.

① ㉡의 두 ‘ㄱ’은 국어에서 뜻을 구별하는데 쓰이지 않는 같은 음운이다.

③ ‘바지’의 ‘ㅂ’은 [p]로 실현되는 반면, 아버지의

‘ㅂ’은 [b]로 실현된다.

④ ㉢의 ‘ㄷ’은 모음 앞에서는 ‘ㄷ’의 음가로 실현되고, 자음 앞에서는 ‘ㄷ’의 음가로 실현된다.

⑤ ㉣에서 두 입술이 닿아 나는 입술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ㅂ’, ‘ㅍ’이다. 따라서 ‘잠, 보, 복, 미’이다.

4. [정답] ③

‘ㅑ’는 반모음 ‘ㅑ/ㅓ’와 단모음 ‘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①, ②, ④, ⑤ 모두 반모음 ‘ㅑ/ㅓ’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5. [정답] ③

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이다. 또한 센입천장소리와 목청소리는 ‘ㅈ, ㅉ, ㅊ, ㅎ’으로 무성음만 있다. 하지만 잇몸소리에는 파열음과 비음 외에도 마찰음 ‘ㅅ, ㅆ’, 유음 ‘ㄷ’이 있다.

① 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과 변하는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② 혀의 높낮이에 따라 나뉘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는 각각 ‘ㅏ, ㅑ, ㅓ’, ‘ㅑ, ㅓ, ㅓ, ㅓ’, ‘ㅏ, ㅑ’가 있으며 4개, 4개, 2개이다.

④ 파열음과 파찰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며 각각 ‘ㅂ, ㅃ, ㅅ, ㅆ’, ‘ㅃ, ㅅ, ㅆ, ㅆ’, ‘ㅍ, ㅑ, ㅋ, ㅊ’의 4개이다.

⑤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는 음운은 자음이며 장애를 받지 않는 음운은 모음이다. 자음과 모음은 모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에 해당한다.

6. [정답] ②

민수가 ‘내’와 ‘네’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하기 위해서는 두 모음을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를 구분해야 한다. ‘ㅏ’는 저모음이고, ‘ㅑ’는 중모음이므로 ‘내’를 발음할 때는 ‘네’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①, ③, ④, ⑤ ‘내’와 ‘네’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이다.

7. [정답] ⑤

‘유음’ 역시 다른 자음처럼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

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 ① ‘ㅂ, ㅃ, ㅍ’ 등은 두 입술에서 소리나므로, ㉠에 들어갈 말은 ‘입술소리’이다.
- ② ‘ㄷ, ㄸ, ㅌ’ 등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이므로, ㉡에 들어갈 말은 ‘잇몸소리’이다.
- ③ ‘마찰음’의 무성음에는 ‘ㅅ, ㅆ’이 있으며 ‘파열음’이나 ‘파찰음’과 달리 ‘거센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로, ‘ㅈ, ㅊ, ㅊ’이 여기에 속한다.

8. **정답** ⑤

한국인들은 ‘바보’에서 첫 번째 음절의 ‘ㅂ’과 두 번째 음절의 ‘ㅂ’이 [p]와 [b]로 다르게 소리 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ㅂ’이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 ① ‘우리나라’의 자음 음운은 ‘ㄹ, ㄴ’로 모두 2개이다.
- ② ‘다리’의 ‘ㄹ’과 ‘달’의 ‘ㄹ’은 각각 [r]과 [l]에 해당하지만, 국어에서는 이러한 대립이 성립하지 않으며, 한 음운인 ‘ㄹ’로 인식한다.
- ③ 국어의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세 가지 소리가 짝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영어에서 대립하지 않는다.
- ④ ‘입마개[임마개]’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위치는 동일하지만 조음 방법이 비슷하게 변한 것이다.

9. **정답** ③

‘ㅛ’는 중모음으로 고모음인 ‘ㅜ’보다 혀의 높이는 낮으며, 두 모음은 모두 입술 모음이 둥근 원순 모음이다.

- ① ‘ㅣ’와 ‘ㅡ’는 모두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이며, 입술 모양이 평평한 평순 모음이다.
- ② ‘ㅘ’는 ‘ㅙ’보다 혀의 높이가 높다. 하지만 두 모음 모두 혀의 위치가 앞쪽인 전설 모음이다.
- ④ ‘ㅓ’는 ‘ㅕ’보다 혀의 높이가 낮지만 ‘ㅕ’와 같이 혀의 위치가 뒤쪽인 후설 모음이다.
- ⑤ ‘ㅛ’와 ‘ㅜ’는 단모음이다. 하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10. **정답** ②

음운은 추상적인 말소리로, 언어마다 차이를 보인다.

- ①, ③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강약, 고저, 장단 역시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다면 모두 음운에 해당한다.
- ④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인 ‘조음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인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⑤ 모음은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로, 방해를 받고 나오는 자음과 차이가 있다.

11. **정답** ③

‘ㄷ’은 잇몸소리로,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난다.

- ① ‘ㄱ’은 어린입천장소리로, 혀의 윗부분과 어린입천장 사이에서 난다.
- ② ‘ㄴ’은 잇몸소리로,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난다.
- ④ ‘ㅂ’은 두 입술에서 나는 입술소리이며,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파열음이다.
- ⑤ ‘ㅎ’은 목청 사이에서 나며 공간을 좁혀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목청소리이다.

12. **정답** ④

모음 ‘ㅘ, ㅙ, ㅚ, ㅛ’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이 둥그랗게 마는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 ① ‘ㅣ, ㅘ, ㅙ, ㅚ, ㅛ’에 대한 설명이다.
- ② ‘ㅘ, ㅙ’에 대한 설명이다.
- ③ ‘ㅣ, ㅕ, ㅡ, ㅜ’에 대한 설명이다.
- ⑤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등에 대한 설명이다.

13. **정답** ⑤

‘의’는 원칙상 [의]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첫음절이 아닐 때에는 [ㅣ]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되며, 조사 ‘의’는 [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⑤에서는 ‘의의’의 첫음절인 ‘의’를 [ㅣ]와 같이 잘못 발음하고 있다.

14. **정답** ⑤

<보기>의 초성에 대한 설명 중 ‘혀끝이 윗잇몸에 닿